

중국고대 북방민족의 髮飾에 관한 연구*

- 遼 · 金 · 元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airstyle in Northern Nation of Ancient China

박춘순** · 김일정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Chun-Sun Park** · Il-Jung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Hair styles for human being develop according to the natural environment. Chinese hair styles have been changed from tousled hair(髡髮) to pigtailed hair(辮髮), later additional style of shaved hair, became pigtailed. Each hair style for people, however, is based on each people's culture and history. Thus, the same changed had not been applied to each culture simultaneously. Hairstyle for Yao(遼) · Jin(金) · Yuan(元) that is a representation of ancient northern tribe, is summarized as follow; Tung Hu'(東胡)s inferior, Khitai(契丹)s hair style is tousled hair and Sushen(肅慎),s inferior, Jurchen(女眞) has partial shave and left 2 strand of pigtail. Hun'(匈奴)s inferior, Mongol(蒙古) has hair in top and shaved head except both sides and rear. One style is circular shape of braided hair at both sides. The other is one strand pigtail at the rear head, which is the original shape for Man(滿) pigtail later.

Key Words : tousled hair(髡髮), pigtailed hair(辮髮), Yao(遼), Jin(金), Yuan(元)

I. 서론

고대 중원의 한족은 두발을 매우 중시하였다. 한족은 두발을 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감히 훼손할 수 없다하여 성인남녀는 두발을 길러 정수리로 올려 엮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렸다. 죄인은 부분적으로 두발을 제거시켜 변방으로 유배되기도 하였고, 삼국시대에 조조도 죄인에게 참수대신에 체발을 명하였다. 단지 두발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출가한 승에 한하였다.

그러나 열악한 기후에 생활하고 있던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들은 민족의 습관과 지리·풍토 등 자연조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체발을 하거나 축발하여 어깨에 내렸다. 중원의 한족처럼 두발을 구속하지 않았다.

특히 요·금·원·청 4왕조는 중원에 큰 영향을 주었던 북방 소수민족의 왕조이다. 이들 4왕조의 전통발식은

일반적으로 막연히 변발(辮髮)이라고 대변되고 있으나 민족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의 청조를 제외하고 추적 자료가 부족한 요·금·원의 발식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정론이 없기때문에 본 논문은 청조를 제외한 요·금·원 3대의 머리모양의 양상을 문헌과 사적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한민족을 지배하였던 청대 이전의 이민족 왕조인 요·금·원 북방민족의 발식에 관한 사실과 그 양상을 역사적으로 논증을 통하여 다음 후속연구로 청대의 변발의 양상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의 한민족은 북방민족을 한마디로 '변발'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변발'이라는 문자를 중국의 사서에서 추적하여 보면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시대를 기점으로 한 요·금·원의 머리모양으로 제한한다. 연구의 내용은 요·금·원의 역사적 배경을 통한 복식제도의 특징과 그 시대의 머리모양을 살펴본다. 연구에

* 본 논문은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Chun-Sun Park

Tel: 042) 821-6824, Fax: 042) 822-8283

E-mail: cspark@cnu.ac.kr

사용될 자료는, 사고전서를 비롯한 각종 서적으로 하고, 출토유물과 미술자료가 되는 벽화나 회화자료를 사용한다.

II. 요·금·원의 역사적 배경 및 복식제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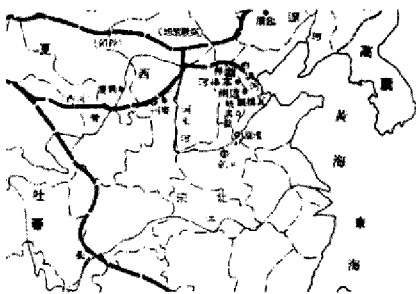
1. 요·금·원의 역사적 배경

1) 요왕조(907-1125)

요왕조를 건설한 거란족(契丹族)의 선조는 진한(秦漢)시에 흉노에 쫓겨 선비산에 본거를 두었던 동호(東胡)이다. 6·7세기말 수·당제국의 멸망 후 중국은 혼란기인 소위 오대십국(五代十國)시대가 도래한다. 당시후량(後梁, 907-923)시기에 야율씨(耶律氏) 아보기(阿保機)가 거란족 8부를 통일하고 발해 및 실위·여진을 침략한다. 그리고 중국의 장성 내로 진출하여 대거란국을 건설하여, 후진(後晉, 936-946)시기에는 국호를 요(遼)라 칭하게 되었다. [그림 1]은 요왕조의 영역으로 건국 당초부터 자국 유목민과 장성 내의 농경민으로 구성된 복합국가의 특징을 겸비하고 있었다.

한편 오대(五代)의 분열 국면을 수습한 송왕조는 그 인접국인 요왕조와 화전(和戰)양면으로 밀접한 국교를 유지하였다. 요조는 자국을 북조(北朝), 송을 남조(南朝)라고 칭하여 중국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요왕조는 정치·사회·문화의 각 분야에 있어 북면관·남면관이라는 이중구조를 갖고 통치하였다. 농경민을 통치하는 남면관은 중국풍으로, 초지(草地)를 대상으로 하는 거란풍의 북면관과는 상당히 취향이 달랐다. 정주지역인 한지에서는 중국문화와의 접촉으로 각종의 물질문화가 거란족 귀족층 사이에 침투되어갔다.

원래 거란족 요조는 초기부터 소위 사민(徙民)정책이



[그림 1] 요왕조의 영역
本國歷史圖解精編 p. 47

라 하여 한족을 자국의 유목영토 내로 대량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것은 국가 경제를 유지시키고 중국과 대항하여 화북 일부를 정복 지배하려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요조는 목·농의 성격을 구비하여 한문화의 매력에 이끌리면서도 유목기마의 문화가 갖는 독자적 가치를 의식하여, 그것을 왕조의 정치기구 속에 반영하려는 특이한 국가체제를 편성하여 갔다.

일반으로 유목민의 생활도구는 세공이 간단하고 이동에 편리한 혁제품이 주류를 이루나, 제작이 간편한 요기(窯器)는 거란족 지배층의 용구로서 출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요기의 보급은 바로 중국문물의 채용으로, 그것은 동시에 거란족 상층부의 생활문화를 변모시켰는데, 총괄적으로 보이는 표본이 경릉(慶陵)유적이다. 거란풍을 유지하면서 중국적 정주문화를 채용하려는 요조의 본질이었으나, 완전한 중국문화의 동화는 거절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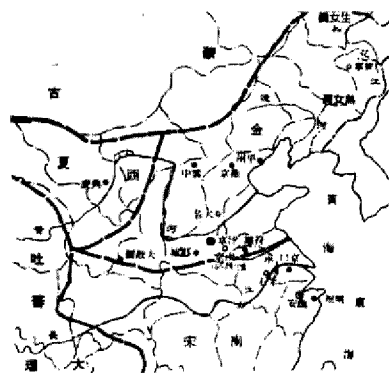
2) 금왕조(1115-1234)

금왕조를 세운 여진족의 선조는 기원전 진대(秦代)에 '숙신(肅慎)'으로 호칭되었으며, 한대(漢代)의 '읍루(挹婁)', 남북조시대에 '물길(勿吉)', 수당대에는 '말갈(靺鞨)'로 호칭되었다. 그 이후 송·요·원·명대에 여진족이라 통칭되었고, 후에는 만족(滿族)의 선조가 되었다.

요대에 발해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진족은 발해의 멸망(926)과 더불어, 여진족도 요왕조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요왕조는 송과의 국교가 활발하게 됨에 따라 점점 중국의 문물을 애호하고 주변 피지배 민족의 공납 착취가 갈수록 심화되어 여진의 지방부족의 하나였던 아골타(阿骨打)가 요조를 멸하고, 1115년 대금(大金)을 건국하고 자신을 황제라 칭하였다.

[그림 2]의 금왕조는 1126년 송도(宋都) 개봉을 함락하고 중국왕조의 제도로 개정하였다. 요양(遼陽)에 즉위한



[그림 2] 금왕조의 영역
本國歷史圖解精編 p. 49

세종은 1162년 연경(燕京)으로 천도하여 화북 평야에 거주함으로써, 자국 고유의 풍속을 버리고 중국풍을 받아들였다. 귀족층은 중국농민에게 농지의 소작료에 의존하였으며, 비단 옷을 입었다.

장종(章宗, 1189-1208)시대에는 북방의 몽골족 침입이 극심하여, 이를 대항하기 위한 축성이나 북벌 등에 막대한 국비가 소모되었다. 1206년 징기스칸의 몽골제국이 성립되고, 이어 1211년 금조로 진격하였다. 금조는 화의를 청하여 몽골군이 일시 후퇴하였으나, 금은 북경에서 개봉으로 천도하면서 저항하였으나 몽골의 오고타이에게 1232년 개봉이 포위되어 금은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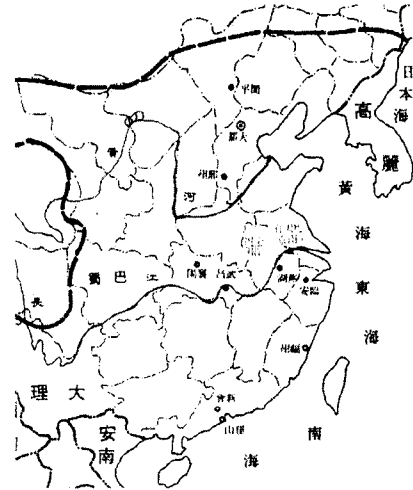
3) 원왕조(1271-1368)

원대 몽골족의 선조를 흉노(匈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흉노와 같은 시기의 동호(東胡) 및 그 후예인 오환(烏桓)·선비(鮮卑)를 몽골인의 선조로 보기도 한다. 선비족은 북흉노의 패주와 함께 지금의 내몽골 동부의 흉노 고지로 이주하여 북위왕조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사적에 의하면 실위와 거란도 역시 오환·선비의 후예이며 이들이 몽골족의 선조라고 한다. 당대의 몽골실위(蒙兀室韋)가 바로 후대의 몽골부이다.

원래 몽골은 여러 부족중의 일개 부족의 명칭이었는데 나중에 부족 공동체 명칭으로 확대되었으며 7세기에 몽골부는 서부의 몽골초원으로 이동하였다. 13세기 초 징기스칸의 몽골부가 몽골지구의 전 부족을 통일하여 1206년 몽골국을 건립한 후 대규모의 정복활동을 전개하여 지금의 북경을 점령하고 중앙아시아와 남러시아까지 판도를 넓혔다. 1271년 후비라이는 국호를 대원(大元)이라 하고 대도(大都)로 천도하고, [그림 3]을 보면 1279년 남송을 멸하여 전 중국을 통일한 원왕조의 영역을 볼 수 있다.

후비라이 즉위 후 중앙집권적 체제를 만들어 관제를 정리하여, 하남·강북 등에 10행성을 설치하였다. 후비라이 세조의 사후에, 원의 궁정 내에서는 몽골 귀족들 간에 권력 쟁투가 일어나, 황제의 암살이나 폐위가 일어나게 되어 원대의 중국인 통제력은 모든 면에서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재정적으로도 세조 시에 이미 파탄을 가져와 국가세입의 8할이 몽골 제왕으로의 세수가 되어, 재정이 궁핍하고 지폐는 난발되어, 중세와 기근에 고통을 받던 민중은 드디어 절망적인 상태로 빠졌다. 여기에 대하여 농민폭동은 점점 격해져 특히 원말 순제대에 백련교도가 대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많은 가난한 농민이었으나 홍건을 사용하였으므로 홍건군(紅巾軍)이라 하였다.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이 주원장(朱元璋)으로 1366년 남경을 중심으로



[그림 3] 원왕조의 영역
本國歷史圖解精編 p.53

독립정권을 확립하여, 강남일대를 통일하고 나아가 북상하였다. 원조의 순제는 1368년 대도를 버리고 북천하여 여기에 몽골족에 의한 중국지배는 막을 내린 것이다

원대사회의 신분제는 몽골족·색목인·한인·남인의 순서로 4계급이다. 색목인은 위글인을 비롯한 서방출신의 제민족을 말하며, 한인이란 주로 금대 지배하에 있던 화북의 중국인·여진족·거란족·발해인·고려인 등이며, 남인이란 남송의 중국인으로 최하위에 위치했지만 인구는 제일 많았다.

2. 요·금·원 복식제도의 특징

송조 이후 중국은 북방지역에 각 유목민족이 흥기하여 중원의 정권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당시 송대의 영토는 북방의 영토가 거란족에게 점령당하여 당대에 비하여 많이 축소되었다. 이후 여진족의 금조는 요조를 멸하였고, 몽고족의 철기(鐵騎)는 금조를 소탕하였다. 이들 3국은 북방의 대무대에서 한족 거주 지역을 통치하면서, 선진의 한문화를 수용하여 자신의 풍속습관에 융합시켰다.

우선 북송과 북방에서 대치하고 있던 요국은 경제문화상에도 중국과 광범한 교류가 있었다. 한문화는 요국 관원의 복제에도 큰 영향을 주어, 태후와 북반 거란인 대신들은 본족 복식을 입고, 국왕과 남반 한족대신들은 중국의 한복(漢服)을 입었다.

요조의 이민정책은 그 말기에 있어 유목지대의 인구나 한지대의 인구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이중구조의 지배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다음의 금·원 100년의 국운에 비하여 요조는 200년 이상의 안정을 유

지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요국 후에 북방에는 금국이 일어나 요국의 예의제도를 계승한 후에 점차 개혁을 단행하였다. 거란·몽골족은 초원지대 유목민이었으나, 금조의 여진족은 북방 기마민족 사회로, 습윤한 삼림지대에 본거지를 둔 문화정도가 뒤떨어진 수렵농경민이었다. 내륙의 유목민은 토지경작에 미숙하여 끊임없이 한민족 농경사회에 침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타고 천하를 정복할 수 있었으나, 말을 타고 통치할 수는 없었다.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를 보충하여 낮은 생산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부딪친다.

여진족의 풍속은 귀족이 죽으면 생전에 사용하던 노비·안마 등을 모두 화장한다. 이리하여 금대의 복식실물은 특히 남아있기 어렵다.

몽골족은 중원에 진입한 후 원조를 건립하였지만, 기마를 선호하는 몽골인은 한인의 예의의관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간 본민족 고유의 복식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을 통일한 후 중원의 한족사회의 선진문명에 도취되어 의복 상에도 한인 습속이 일부 반영되어 화려해져간다.

원조는 요·금이라는 정복왕조의 뒤에 출현하여, 많은 이민족 사회를 포함한 가장 다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즉 몽골족·색목인·한인·남인 등 독특한 종족별 사회계층이 생겨난 것이다. 원대의 몽골족 유목영주들은 유목지와 한지(漢地)에 각각 다른 성격을 갖는 영토의 지배자로서 이들의 다민족사회에 군림하고 있었다. 원조 황제는 또한 이들 유목영주들의 수장임과 동시에 그 지배하에 있는 이질적(異質的)사회를 지배하는 동아시아 대제국의 군주이며, 나아가 유라시아대륙에 걸치는 몽골대제국의 각 한국의 군주들의 가장이기도 한 세계최대의 권력자였다.

중국은 일찍부터 변방의 이민족 수장에게 봉읍을 주어, 이들은 중국사회의 실태에 접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용하여 정복왕조의 군주들도 화북일대와 장성지대의 목농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목과 농경지역을 합하여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금은 물론이고, 요·원은 모두 처음부터 목·농 정권적 성격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영역을 정복하여 거기에 왕조를 열었으나 그 성격은 달랐다.

요조 통치가 200년이나 된 것은 오히려 결국 장기간의 중국문화에 융해되는 결과를 가져와 그 후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하였다. 여기에 비하여 여진족 금과 몽골족 원은 그 민족문화가 유존되어 후세에도 명맥을 유지하여 금은 청조의 모태가 되었고, 원은 지금도 몽골이라는 민족으로 엄연한 국가를 이어가고 있다.

복식제도에 있어서도 요왕조는 역사상 매우 독특하여, 즉 남반·북반 이라는 두벌의 복식제도가 있었다. 남반은 한복(漢服)제도를 따르는 것으로 오대후진(五代後晉)의 관복유제를 계승하여 황제와 한관(漢官)의 관복으로 착용하였고, 북반은 거란족복제로 거란족의 전통복식의 특색을 반영한 것으로, 태후와 거란족 관원의 관복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황제도 거란복을 입었다.

금대종은 요를 멸한 후, 남으로 송조의 강역을 침범하여 점령지구의 한족에게 금인 습속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제를 채용하여 구습을 개혁하고 복식을 포괄하여 새로운 전장제도를 창제하였다. 회종은 3년(1140), 송·요의 관복제도를 참조하여, 전면적인 복식제도를 개혁하였다. 제도규정은 한족문화가 금대복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특색이다.

원조는 경제·문화·생활습관이 모두 중원보다 낙후된 북방초원에서 길기하였으므로, 그 의관복식도 역시 간박(簡朴)하였다. 원조의 통치자는 근취금송(近取金宋), 원법한당(遠法漢唐)이라는 정책을 써서 한인에게 금송의 생활습속을 강요하였다. 원대의 통치는 금조와는 달리 오랜 기간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복식에 있어서도 국속을 강요하지 않았던 것에 특징이 있다. 통치자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한문화의 예제를 흡수하면서 복식제도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Ⅲ. 요·금·원의 발식

1. 요(遼)의 발식

거란족(契丹族)의 선조인 동호는 진한 시에는 그 서방의 흉노와 대항할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으나 풍속습관 등에 관한 기사는 물론 그 두벌의 형상은 더욱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일부 사적에 단편으로 곤두(髡頭)라는 기사를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오환과 선비는 동호와 같은 족속으로 글안인은 고대 동호의 후예이다. 이들은 오대부터 송초에 거란족이라는 명칭으로 크게 세력이 확장되어 다시 역사에 등장하여, 장성을 넘어 중국 본토의 동북부를 점령하여 결국 요국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거란족은 이 시기에도 곤발좌임(髡髮左衽)이라는 기사가 있어, 후한시대와 같은 두발제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곤발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승려와 같이 두발을 모두 깎아 버리는 형상이다. 그리고 발해수령 등이 곤발좌임(髡髮左衽)을 하여 거란족의 풍속을 따



[그림 4] 卓歇圖

랐다고만 하고 곤발형태에 관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요대 관료들이 금화직성(金花織成)의 주머니 속에 한 묶음의 두발을 넣고 있다고 소개한 것을 보면, 송려의 삭발이 아니고 일부만 두발을 남긴 유발(留髮)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문헌 기록은 이것이 맑은 상태의 편발(編辮)인지 그대로 내린 산발(散髮)인지 알 수 없으나, 뒷통수(腦後)로 한 가닥이라 하였으니 만족(滿族)의 변발(辮髮) 형상을 연상하게 한다. 여기서 곤두·곤발은 두발 전체가 아니고 정수리 두발을 제거하는 것이고, 귀 주위에 수발(垂髮)한다고 하여 머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 그 이상 상세한 기록이 없어 직접적인 시각자료를 찾지 않을 수 없다.

요대 전세화(傳世畵)는 매우 적지만 단지 야율배와 호피의 작품이 있다. 그러나 호피는 그 활동연대가 확실하지 않아, 그의 탁월도의 인물 역시 거란인으로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도 탁월도는 여진인에 넣기로 하였다. 그리고 야율배의 기사도 역시 모자를 쓰고 있어 발식을 볼 수 없다.

다음은 요대 벽화묘의 거란족 발식을 찾아보기로 하자.

[그림 5]는 근년 출토된 요대 벽화묘의 벽화에서 다양한 발식이 보이는 고륜(庫倫) 1호묘이다. 이것은 시리출행도(侍吏出行圖)를 표현한 것으로, 좌측 인물의 발식은 전액 좌우에 연결하지 않은 유발근부(留髮根部)가 타원형인 한 묶음의 장발을 남기고 나머지 두발은 모두 제거하였다. [그림 6]의 고륜2호묘의 발식, [그림 7]의 강영자(康寧子)묘에서 보이는 발식과 [그림 8]의 북삼가(北三家) 1호묘에서도 그 발식을 볼 수 있으며 모두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유발(留髮) 위치가 부동하며 장발의 처리가 다를 뿐이다.



[그림 5] 고륜1호 벽화인물, 요대벽화선 p.20



[그림 6] 고륜2호 벽화인물, 중국고대복식연구 p.391



[그림 7] 강영자벽화인물, 요대벽화선 p.25

[그림 5] 고륜 1호묘 좌측에서 2, 3번째 인물의 발식은 좌우빈(鬢)에 한 묶음의 남긴 장발은 앞이마로 가지런히 내린 두발과 연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하였다. 이것은 [그림 9]해방영자(解放營子) 묘의비웅도청년의 발식과 비슷하며, [그림 10]내몽고 경릉(慶陵)벽화와 [그림 11]백음오포(白音敖包) 팽임도와 같다. 이러한 발식을 곤발 피발이라 표현하였다.

고륜 1호묘 네 번째 인물의 발식은 유발근부를 초생달 모양으로 앞이마에서 상접하고 나머지 두발을 모두 제거



[그림 8] 북삼가1호벽화묘 요대벽화선 p.13



[그림 11] 백음오포노복도, 요대벽화선 p.36



[그림 9] 해방영자비응도, 대벽화선 p.42



[그림12] 고륜7호묘벽화인물, 중화역대복식예술 p.289



[그림 10] 경릉벽화의 행렬도, 심종문, p.388

한다. 이것은 고륜 7호묘 강영자묘에서도 보여, 요의 후반기 글안인 최하층이 즐기던 발식으로 보인다. 기타 요묘 벽화에 보이는 발식은 위의 3가지 형식에 수식을 더하거나 약간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거란족은 묘를 만들지 않는 풍속이 있어, 부모가 죽어 우는 자는 장사가 아니고 그 시체를 산수에 두어 삼 년경과 후에 태워버린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한문화를 수용한 중기 이후 묘실을 만들기 시작하고 다채로운 벽화로 장식하는 매장풍속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상을 살펴보면, 거란족의 곧발은 두발 전체를 제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두발을 남기고 제거하여 장식으로 삼는 것이다. 대체로 모든 정발을 제거하지만 그 남은 유발(留髮)의 형상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 전액 좌우에 유발근부를 타원형으로 남겨 장발하는데, 장발 근부는 서로 연결하지 않는다. 둘째, 좌우 빈 상방에 한 묶음의 장발은 앞이마에 술처럼 늘인 가지런한 두발과 연결한다. 셋째, 앞이마 좌우에 유발근부를 초생달형으로 만들어 연결하도록 한다.

요대 거란족 남자의 발속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본족 전통의 습속을 유지하여 곧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발은 결코 모든 두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남겨 장식으로 하였다. 심지어는 양빈발은 길게 길러 심지어는 가슴에 이르도록 하지만, 변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인들 기록에 곧발(髡髮)은 두발을 제거한 면에서 본 것이고, 산발(散髮) 혹은 피발(披髮)이라고 한 것은 유발 혹은 축발한 모습에서 본 것이다.



[그림 13] 문희귀한도, 보스톤미술관전, 國立西洋美術館, 讀賣新聞社, p.68, 1978



[그림 14] 호가십팔박도, 심종문, 中國古代服飾研究, 上海書店出版社, p.400, 1997

2. 금(金)의 발식(금은 굴복적)

전국시대 문헌에 출현하는 숙신(肅愼)은, 보통 후세의 읍루(挹婁)·물길(勿吉)·말갈(靺鞨)·여진(女眞)·만족(滿族)의 선조이다. 이 숙신의 풍속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숙신씨조에 속개편발(俗皆編髮)이라 하고, 나아가 숙신·말갈·읍루가 모두 편발, 흑수말갈조에 편발이라고 하나 그 편발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리고 변발수견여금단이(辮髮垂肩與契丹異)이라 하여, 진대의 숙신·당대의 말갈·송대의 여진은 거란족과는 달리 변발민이라고 하여 그 이후는 편발이 변발로 바뀌었다. 그리고 후대의 만족이 뒷머리를 땀아 등 뒤에 늘이고 있던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진과 만족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나, 송대의 여진족도 청조의 변발모양을 하고 있었을까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금조 여진족은 송조의 기록에 의하면 편발이라 하였고, 금의 세종(1161-1189)은 여진족의 풍속과 두발을 한식으로 하지 말고 변발을 할 것을 고지하고 있다. 그리고 금의 포로가 된 송의 관리들에게 여진의 변발양식이 강요되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참수되었다. 그리하여 여진족의 발속이 변발이라는 것에 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그 양식에 관하여는 정론이 없다.

여진족의 변발은 금초에 여진과 접촉하였던 송인 기록 중에 보다 상세하다.

첫째, 여진족 발식은 거란족과 다르며, 뒷머리를 남겨 색사로 묶는다.

둘째, 여진족은 변발을 하여 이것을 뒤로 늘이고 있다. 또한 유로후발(留鬚後髮)은 뒷머리를 남긴다는 표현이다.

셋째, 변발수견(辮髮垂肩)이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여진족의 변발양식을 보면, 우선 여진족의 곤발은 거란족의 얼굴 양측을 남기는 곤발과는 다르다. 여진인은 앞이마와 정수리의 두발을 제거하고 후두의 두발

을 모두 남기고 변발수견(辮髮垂肩)·변발수후(辮髮垂後)라는 설명은 청대 만족 개체변발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즉 두 줄로 번자한 두발을 어깨나 등 뒤에 늘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진족 변발은 이마와 정수리는 제거하고 그 나머지 두발을 길러 두 줄로 땀아 등 뒤에서 어깨로 늘어 현대 여자 두 줄의 번자와 유사함을 발견한다.

한대(漢代)의 채문희(蔡文姬)가 중원으로의 귀한하는 장우의 『문희귀한도』는 유목민 남녀가 어린이를 안고 말에 타고 있는 그림이다. 2세기말 후한시대 전설에 문희가 흉노에 출가하여 12년 후에 드디어 중국에 돌아온다는 비극을 주제로 그린 것이다. 북방 유목민족에게 시달리고 있던 송대 이래로 중국은 이 문희출가(文姬出嫁)와 귀한도(歸漢圖)를 흔히 그림의 소재로 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어린이 2명은 금대 여진풍으로, 정수리에서 후두부를 제거하고 전액과 후두부 양옆을 길러 양 갈래로 땀아 붉은 끈으로 매고 있다.

[그림 14] 호가십팔박도(胡笳十八拍圖)의 인물 복식은 여진인으로, 발식을 보면 양 귀부분의 두발을 길게 기르고 나머지는 체발하고 있다. 이상 관련 사적 기재는 물론 금대 풍속화에 의하면, 여진족은 변발을 하였으며, 금인 남자는 곤액변발(髡額辮髮)으로 앞이마를 제거하고 그 뒤두발을 남긴 형식이 요대와는 달랐다. 금인은 양귀에서 위로 향하여 정수리의 전면의 두발을 제거하고, 그 뒷부분을 장발로 길러 땀아 어깨에 늘이고 있다. 변발 양식은 청대 만족의 한 줄의 대번자가 아니고 두 줄로 발번하여 뒤나 앞으로 늘이는 여진족 특징의 변발양식을 갖고 있다.

3. 원(元)의 발식

몽골족의 기원문제는 아직도 이론이 분분하지만, 대개는 흉노에 기원을 두는 의견에 일치하고 있다. 이 흉노의 습속에 대하여 주말(周末)에서 진한(秦漢)사이의 흉노의



[그림 15] 사림광기, 중국고대복식연구 p.444

변발, 그리고 원대 몽골족이 변발민이라고 한 것을 확실하나, 여기서 두발제를 변발추계(辮髮椎髻)라고 표현한 것은 추계 속에 변발을 넣은 것일까, 변발의 어느 상태를 추계라고 하는 것일까.

원대에 몽골족의 변발은 고려 측 문헌에 보이는데, 고려가 몽골의 변발을 수용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 즉 변발호복(辮髮胡服)·개체(開剃)라는 용어가 자주 나타나는데, 변자의 수나 그 위치에 관한 설명이 없다. 여기서 정수리에서 이마에 이르기까지 사주(四周)를 제거하고 그 가운데 두발을 남긴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접구아(怯仇兒)·객고록(客古勒)은 동음으로 모두 변발을 말하는 것이라고 白鳥가 논증하고 있다. 나아가 부인이 2개의 변자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등에 하나는 가슴에 내린다고 하며, 송대 맹홍도 몽골족은 위로는 정기스칸에서 아래로는 국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개체파초(開剃婆焦)하여 중국의 어린이와 같다고 한다.

송대에 어린이 두발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발각(鵝角)은 동발(童髮)을 위하여, 정수리 앞머리를 일부 남겨 채증(綵縵)으로 묶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파초(婆焦)는 몽고인의 체발풍속을 말하는 것으로 북방에서 삼찰모(三

撮毛), 남방에서 삼탑두(三搭頭)라 하여, 전액발과 양측발을 남겨 삼탑두발이라 한다. 나머지 정수리와 뇌후의 두발은 모두 제거하고, 전발을 늘여 이마에 오게 하고, 양측발은 변자를 만들어 어깨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앞머리의 두발 한 묶음은 짧게 잘라 내리고, 양측의 양탐은 둥글게 계를 만들어 양방에서 어깨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양방으로 향하는 사시의 시선을 막아, 사람들이 낭시(狼視)를 못하게 하여, 이것은 몽골어로 불량아(不狼兒)라고 하였다. 앞머리는 자라면 자르고, 좌우 두 가닥은 땀아 좌우 어깨에서 계(髻)나 환(鬘)을 만들어 어깨에 이른다. 그리고 소환을 귀 뒤로 늘이는 경우는 뇌후는 산발하여 남긴다. 그리하여 변발이라 하는 것도 근거가 있다

이것은 원대 남자 발식은 전액을 제거하여 한 줄기 두발을 남기는 것은 요·금과 상사 하나 후세 만주 발속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나 실제상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원대에 각화에 [그림15]이 있는데, 두 명의 관원이 호상(胡床)에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등 뒤로 한 줄의 변자를 늘이고 있다. 이것은 정소남 기록의 몽골족의 발식과 일치하며, 후래의 만족 변발과 비슷한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6]의 후빌라이 초상은 건(巾)을 쓰고 있어 전체가 보이지 않으나 귀 뒤로 환(鬘)이 보이며, 유럽굴 벽화에 원정모를 쓰고 있어 정수리는 볼 수 없으나, 그림 17은 양측발을 길러 둥글게 환을 만들고 있는 공양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원대 몽골족 남자의 발식은 전 왕조 금대와 달랐다. 이들은 황제백관에서부터 평민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종에 파초(婆焦)라 부르는 머리형을 하고 있었으며, 그 모양은 한족 아동의 삼탑두와 비슷하였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몽골족의 두발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동호의 곤발과 흉노의 변발이 혼합된 형식이 된다. 그리하여 몽골의 변발양식은 전액에



[그림 16] 쿠빌라이초상, 원대도 p.38



[그림 17] 림굴공양자, 돈황벽화복식자료 p.58

도 두발을 남기고 정수리를 제거하여, 나머지 뒷머리를 축발하여 한 줄 혹은 두 줄의 변자로 만드는 양식과 뒷머리를 그대로 산발하고 양옆머리를 길러 땅아 환으로 만들어 두 개로 귀 뒤로 늘이는 두 가지 양식이 있었다.

4. 요·금·원의 발식비교

고대 북방민족의 두발의 풍속양식은 사적 중에 통일된 설명이 없다. 일반적으로 변발좌임을 고수하던 북방민족은 역사적인 변천 과정 중에 중원문화와 충돌하여 때로는 동요 분해되기도 한다. 북위(北魏)는 역사상 변발좌임을 개변한 저명한 일례로 한화(漢化) 개혁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였으나 중원문화에 완전히 융해된 왕조였다. 요대(遼代)는 거란족 문자를 창시하는 등 중원문화에 대하여 저항적인 측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금대(金代)는 언어·복식 등에 한화를 추행하여 굴복적인 측면을 보였다. 궁려(穹廬)에 살면서 수초를 따라 이동하는 원대 몽골족도 한지에 진입한 후 한인의 의례로 개정하고 복식도 당송의 장속을 모방하였다.

<표 1>의 요왕조의 발식은 요대고묘의 벽화 인물은 일률적으로 체두 즉 곤발이고, 앞이마의 두 가닥의 두발을 남겨, 귀 앞이나 뒤로 나누어 늘어트린다. 사서에 보이는 곤발이라 하는 것은 두발을 제거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후세 만족의 발속과 상통하는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여진인의 발식은 정수리 두발을 제거하고 두상에 좌우로 두 가닥을 남겨 늘어트린 것이다. 이것은 거란인 발식과 비슷하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여진인은 두 가닥으로 남긴 두발은 뇌후의 좌우이고, 전액 좌우가 아니다. 금인은 정수리 두발을 제거한 후 나머지를 산발한 것이 아니고, 뇌후에 두 개의 소변자로 편성한 것이다.

금조와 원조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 여진·몽골 양 민족의 생활습속은 서로 비슷하지만 변발양식은 일치하지

않는다. 여진족의 발식은 변발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변발이 아니다. 당시 금과 접촉한 송인의 묘사에 의하면 여진의 변발은 변발체두라고 표현한다.

1616년 누루하치가 중국 동북경내 여진각부를 통일한 후금의 풍속은 금대의 여진족과는 매우 다르다. 1234년 금조가 멸망하고 후금이 건립되기까지 400년 동안 수차례의 민족이동과 병합, 그리고 한화(漢化)로 인한 풍속의 개변이 있었을 것이다.

금조는 화북거주의 한인에게 여진풍의 변발과 복장을 강요하여, 이를 어기면 죽음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금대의 변발령 발표 이래 청조말기까지 8백년 간, 그 사이의 명대 3백년간을 제외하면, 5백년간은 화북의 많은 중국인들은 변발을 강요당하였다. 자고로 중국인처럼 발포(髮禍)로 곤욕을 치른 인종도 드물다

알타이 민족 중에 역사상 가장 활약하였던 퉁구스·몽골·터키의 3종 중, 가운데 위치한 몽골은 동호의 곤발과 흉노의 변발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동방에 위치한 퉁구스의 여진족은 몽골족의 영향을 받은 변발민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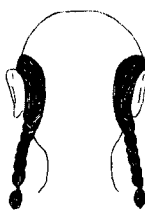







원은 세조 후비라이 즉위 1260년부터 1370년까지 100년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그 영토는 멀리 유럽에 이르고 송대 문화유산을 계승하면서 이것을 더욱 충실히 발전시켜 북방민족의 야성을 버리고 한민족의 문화풍속에 스스로를 동화시킴으로 결국 멸망해가는 운명의 정복왕조가 되었다. 원대도 풍속에서 많은 한문화를 받아들였으나 그들의 머리모양만은 고수하였다.

IV. 결론

한인들은 변방민족의 발식을 막연히 변발이라 언급하여 그 구체적인 형상은 서술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문헌과 두발에 관한 언급 및 최근까지 발견된 문물 및 회화자료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하여 요·금·원 3왕조의 발식 형상을 정리하였다. 또한 3왕조의 발식을 도식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였다.

요조 거란족의 곤발이라 하지만 모두 두발을 제거한 것은 아니고 앞이마에 두발을 남겨, 귀의 전후로 늘어트렸다. 곤발이란 표현은 두발을 제거한 모양에서 말하는 것이다. 금대 여족이 편발·변발이었다는 것은 정수리 두발을 제거하고 좌우로 두발을 남겨 늘어트린 것이다. 요조 발식과 비슷하지만, 여진인은 두 묶음의 두발을 뇌후로 보냈고 거란인은 얼굴 좌우로 보낸 것이 다르다. 그리고 여진족은 남은 두발을 그냥 산발하지 않고, 변자로 편성하여 늘어트린 것이다. 원대 몽골족 남자 발식은 변발·

〈표 1〉 도식을 통한 요·금·원 발식비교

북방민족	발식 형태 도식 분류		
遼(거란) 髻髮垂肩			
	頂額頭髮(초생달형)	左右頂額側髮	頭頂遞去垂髮
金(여진) 辮髮垂肩			
	左右後髮辮자後髮(측면)	左右後髮辮자後髮(후면)	左右後髮(후면)
元(몽골) 辮髮鬢髻			
	頂額頭髮辮자	頂額頭髮小鬢髻	頂額頭髮多鬢髻
			
	辮자垂背	小鬢髻	多鬢髻

파초라 하였으나 구체적 형상은 한인 아동의 삼찰모와 비슷하고 정수리 밑으로 남긴 두 다발은 작은 변자로 편성한 후 환을 만들어 귀 뒤로 늘이고 뇌후의 뒷머리 두 발은 산발로 남긴다.

상고시대부터 사서에 말하는 북방민족의 편발이란 변발을 말하며, 이후 북방민족은 두발을 편발하는 습속을

승상하게 되어 갈수록 확대되었다. 중국인의 발식은 자연 환경에 근거하여 변화되어, 대체로 피발을 거쳐 편발을 경과하여 이후에 여기에 곤발이 첨가되어 다시 변발을 형성한 것이다. 당연히 발형 변화는 각 민족의 정황에 따라 이러한 규율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분리할 수 없게 진행해 왔다.

고대 북방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요대의 발식은 부분적으로 두상에 두발을 남기고 대부분은 제거하여 곧발족이고, 금대는 부분적인 제거를 하지만 두 줄을 뒤로 늘인 변발족이고, 원대는 앞머리 일부 머리를 남기고 두정을 제거하고 양옆과 뒷머리를 남겨서, 하나는 양옆 머리를 길러 땀아 소환으로 만들어 귀 뒤에 늘이는 양식과 뒷머리를 모아 한 줄의 변자로 하는 변발족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髡髮, 辮髮, 遼, 金, 元

참 고 문 헌

- 史記·五代史·遼史·金史·宋史·漢書·元史·舊唐書·晉書·唐會要欽定·歷代職官表·文公易說·欽定歷代職官表·御批歷代通鑑輯覽·契丹國志·大金國志·冊府元龜·北風揚沙錄·大金國志·說郛·大金國志·遼史拾遺·高麗史世家元宗·曝書亭集·蒙韃秘錄·癸辛雜識續集·心史
- 鄂嫩哈拉·蘇日台, 中國北方民族美術史料, 上海人民美術出版社(1990), p.331
- ボストン美術館展, 國立西洋美術館, 讀賣新聞社(1978), p.68
- 沈宗文, 中國古代服飾研究, 上海書店出版社(1997), p.393, p.400
- 李德洙, 中國少數民族文化史(上), 遼寧人民出版社(1994), p.201
- 朴春順·林英柱, 匈奴의 服食文化 小考, 中國史研究25集(2003), p.211
- 白鳥庫吉, 亞細亞北族の辮髮について, 史學雜誌37-1, p.3
- 李學勤, 中國通史圖說·七, 九洲圖書出版社(1999), p.272
- 金容文, 아시아의 修髮樣式에 관한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1993), p.80
- 鄭榮臻, 女真髮辮式樣管窺, 北方文物(1987-4), p.72
- 孫進己, 遼代女真族的風習及宗教藝術, 北方文物(1985-4), p.53

(2006. 01. 31 접수; 2006. 07. 31 채택)